



사건기자의 판지

사람 냄새 가득한 시장통의 '아트 페어'

예나 지금이나 시장이라는 곳은 서민들이 역척스러운 삶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오가는 흥정소리, 구성진 상인들의 목소리 그리고 산과 들과 내음을 담은 풍성한 장거리들은 가슴 따뜻하게 하는 묘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들어서서 대형 마트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장에 모처럼 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20일부터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일대에 '제로-베이스 액션 아트(Zero-base Action Art)'라는 아트페어가 열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번지르르한 갤러리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트페어가 사람 냄새 가득한 시장통에 딱 하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이 틈을 타 대인시장 공중에는 가판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음직 듯한 버전이 등장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며 걸어놓은 빨간 양말처럼 공

중 매달린 빨간 버전은 바닷 잔내를 머금은 건어물을 담고 삶의 풍경을 그린 것 같은 근사한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웬지 반듯반듯 정돈된 마트에 익숙했던 장바구니도 시장의 정돈되지 않은 생활 속에서 멋진 선물 보따리로 변신할 것 같습니다.

집체하고 있는 대인시장과 척박한 창작조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지역 젊은 작가들은 많을뿐입니다. 이들이 함께 공존과 희망을 꿈꾸는 의미를 담은 이번 아트 페어는 25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 연말 미술 작품 흥정을 위해 대인 시장에 나가보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장도 보고 미술품도 살 수 있는 아트페어, 장도 보고 희망도 살 수 있는 공간은 어디 없을까요?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리빙 센스

주름 관리

피부 탄력이 저하되면 주름이 심해진다. 35세 이후에는 얼굴 전체에 바르는 리프팅 제품을 하나 구비하는 것이 좋다.

①내용물은 충분히

아이 크림이나 리프팅 크림의 경우 제품이 얼굴에 제대로 스며들도록 충분히 달아내어 꼼꼼하게 바른다. 바를 때에는 약지로 손가락 마찰을 최소한으로 해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피부에 제대로 스며들도록

토너는 휘발성이 강해 눈가에 바르면 수분까지 빼앗아가므로 바르지 않도록 하고, 에센스나 세럼을 바른 다음에 아이 크림을 바른다.

③표정 관리와 눈가 휴식 마사지

평소에 주름이 가장 도드라져 보이는 눈가는 피로하면 눈이 푹 꺼져 보이면서 생기 없이 보이고 주름이 굽어진다. 보습 크림을 바른 뒤 검지를 눈두덩에 갖다 대고 눈썹 뼈를 따라 바깥쪽으로 눌러주면서 10~20회 정도 마사지를 반복한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3일(음 11월 26일 丁酉)

子	36년생 가정 직장 자신 사이에 불륜사가 생기나 곧 해결된다. 48년생 결혼기와는 다르게 일이 쉽지가 않다. 60년생 과도한 욕심이 없는 한 평안하다. 72년생 감각 놀람 만한 좋은 일이다. 84년생 눈물보다는 웃음이 얼굴에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12, 43
丑	37년생 문서상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다. 49년생 미운사람이 나타난다. 61년생 바쁜 하루가 될 것이니 준비를 잘하라. 73년생 보고 싶은 사람이 보이지 않고 싶은 사람만 보인다. 85년생 속단 언급물이나 여유 있게 생각하고 행하라. 행운의 숫자: 13, 34
寅	38년생 시간은 지루하나 뜻하는 일은 이루어진다. 50년생 애인이 생길 수도 있으나 준비를 잘하라. 62년생 옛 감정은 잊고 화해하면 좋으리라. 74년생 욕심을 버리고 자중하라. 행운의 숫자: 16, 37
卯	39년생 일회일비가 있지만 과욕만 하지 않으면 대고는 없다. 51년생 자식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63년생 자신의 인생설계에 변화가 온다. 75년생 작은 명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20, 45
辰	40년생 잘못된 옛 일이 자신을 괴롭히는 하루가 된다. 52년생 절대 분수를 지켜야 화가 작아지리라. 64년생 좋은 인연이 생길 수도 있으니 멋을 내보라. 76년생 주변에서 협력자가 나타나지만 큰 도움은 못준다. 행운의 숫자: 25, 35
巳	41년생 직장에서는 행동을 짐에서는 말을 조심하라. 53년생 어려워하던 일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65년생 친한 사이에 새로운 사업은 제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77년생 흥남이에게 구두 주는 격이다. 행운의 숫자: 32, 41
午	42년생 구설수 시비 송사 등등 모든 것은 자신의 행동이 원인이다. 54년생 나ச்ச지 않을 때를 가려야 한다. 66년생 남여 사이에 구설수로 명예 흠집이 날까 무섭다. 78년생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01, 41
未	43년생 너무 자신의 재주를 믿지 말고 준비하라. 55년생 먼저 생각하고 말하라. 67년생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있으니 조심하라. 79년생 부부사이에 의무를 다하면 이별은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11, 21
申	44년생 부자기간에 많은 대화가 필요하니 기회를 만들라. 56년생 상당한 고통이 따를 수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하라. 68년생 순리대로 행동하면 결과가 좋으리라. 80년생 아내의 남편을 살려보라. 행운의 숫자: 11, 39
酉	45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손실이 없으리라. 57년생 아들 딸과 대화를 하고 고민을 들어보라. 69년생 아무런 친한 친구의 말도 다시한번 생각해 보라. 81년생 오래 동안 생각한 것을 결정하라. 행운의 숫자: 19, 30
戌	46년생 울고 싶은 일이 생기나 어려운 일은 아니다. 58년생 이성으로 마음이 헛갈리니 중심을 찾자. 70년생 인생의 후반전 계획이 중요하다. 82년생 자신의 입으로 쌓아온 명성이 무너질까 걱정된다. 행운의 숫자: 20, 29
亥	47년생 주변의 도움으로 고민했던 일들이 잘 풀려간다. 59년생 친구의 도움이 절실하니 예정을 놓치지 마라. 71년생 형제 부모가 도우니 모든 일이 평온하다. 83년생 힘 때와 힘 때 시기를 놓치지 마라. 행운의 숫자: 31, 33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I love MY student



장봉화

지난달 말 제자들로 부터 졸업 30주년 기념 동창회에 참석해 달라는 초대장을 받았다. 그들은 1976년 내가 초등학교 교사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전직해 처음 부임한 고흥 도화고 제1회 졸업생들이었다. 나는 이듬해 3학년 담임을 맡아 그들 60여 명을 졸업시켰다.

행사당일 모임장소에 아내와 함께 나갔다. 제자들은 정확히 30명이 모였다. 많은 축하 화환이 식장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은은한 음악과

프로그램,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구해 우리 학생들 실정에 맞게 편집하여 집중 지도하였다. 제자들이 지금 종사하고 있는 직업은 매우 다양하다.

“저희들이 이렇게 사회인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은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주신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철없는 저희들에게 정신교육과 함께 성취동기를 부여해 주셨지요.”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사실 저희들은 학교에서 잘라버려야 할 문제 제자들이었지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따뜻이 감싸주고 졸업장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열의는 대단하다. 동문회를 조직해 매년 동문체육대회와 동문의 밤 행사를 실시한다. 매년 장학금을 모아 10여 명의 후배들에게 지급하고, 동문회지도 발간한다. 특히 1회 졸업생들의 활동이 훌륭하다. 졸업 30주년 행사를 화려하게 치러내 좋은 전통을 마련하면서 ‘시

제자들의 졸업 30주년 동창회

함께 깔끔한 만찬이 마련돼 있었다. 그들의 은사로 행사에 참석한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다른 은사님들도 모두 초대할 하지 그랬나?” 했더니, 당시 은사들 중에서 벌써 세 분이 작고 하였고, 다른 분들은 연락이 안 되고, 세 분에게 참석 안내문을 보냈다고 했다. 두 분은 피치 못할 가정사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다.

제자들은 30년 전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와 웃음꽃을 피웠다. 나는 제자들로부터 꽃다발과 정성어린 기념품을 받았다. 마침 그 날이 아내 생일이어서 그것을 바로 아내에게 전달하였다. 나는 아내를 연인이듯 동반자요, 간호사이며, 영양사이고, 운전기사, 술 상무라고 소개했다. 폭소와 함께 큰 박수가 터졌다.

당시 나는 30대 초반이고, 그들은 10대 후반이었다. 많은 학생이 삼승적으로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였고, 생활이 불규칙하였다. 공부하는 분위기도 아니었다. 나는 당시 진학지도 실적이 우수한 몇 개 학교를 방문하여 성취동기

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진리임을 입증했다. 제자들은 모두들 어울려 담소하며 음식을 나누었다. 점차 분위기가 무르익자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두 흥에 겨워 어린아이들처럼 부둥켜안고 어깨동무를 하여 빙빙 돌았다.

밤 10시가 되어 회장인 송기조 군이 모두들 자리를 앉혔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건배를 하였다. 익살 좋은 이계학 군이 우리 부부의 의자와 앉게 하고 제자 대표로 인사를 하겠다 면 바다에서 널찍 큰 절을 하였다. 자기의 비단 목도리를 벗어서 아내에게 감아주고 비아그라 두 알씩을 우리 부부에게 선물하였다.

“우리는 아직 이런 거 필요 없는데... 다른 친구에게나 줄까?” 좌중은 다시 폭소로 물결쳤다. 나는 아내와 함께 택시로 집에 돌아왔다. 행복감으로 인해 전혀 피곤하지 않은 하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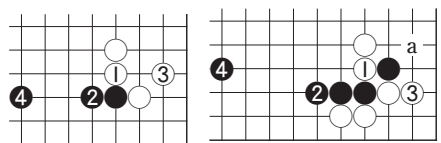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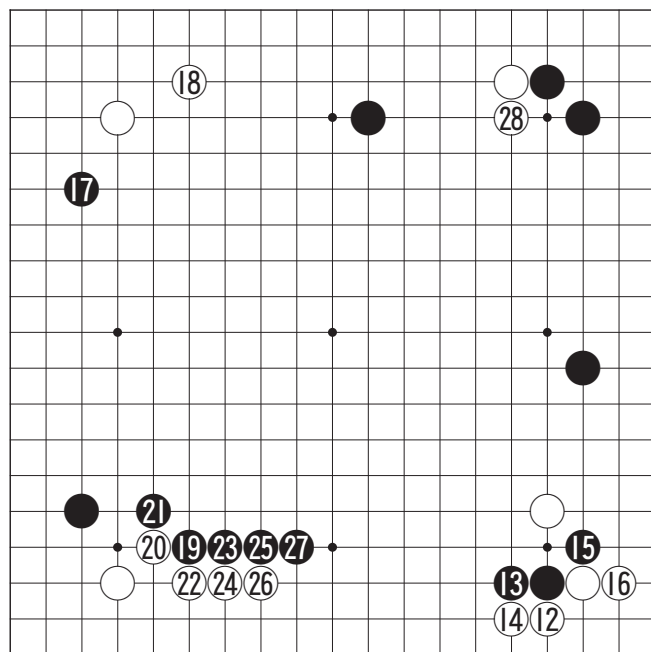
(나주 봉황중·고등학교 교장)

제89회 전국체전바둑대회

난해한 대사백변

일반부 결승 2보(12~28)

白 송승석 7단 黑 이상헌 6단 (경기) (서울)



백 12가 장고골의 선택인데 이 수로는 '참고도 1'의 백 1로 처참하고 3으로 지키는 수가 제일좋다. 그러나 이 모양은 편하기는 하지만 너무 단순하다. 그래서 백 12로 찌른 것이다.

백 16으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참고도 2'의 백 1로 끊고 3으로 내려서는 것이

정석으로 당연시 되었다. 그러나 이 모양은 다음 흑으로부터 'a'로 두어오는 노림을 당하는 것이 기본 나쁘다. 그래서 16으로 가만히 내려서는 수가 최근에 유행하고 있다.

흑 19로 크게 싸운 수는 '대사백변'이라고 하여 이 정석만으로도 꺾을 한결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변화가 복잡하고 난해한 정석이다.

백 20은 그중 가장 알기쉬운 정석으로 복잡하게 유도하는 상대의 의도를 거스르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 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p>굿모닝 잉글리쉬 <1216></p> <p>Is everyone here yet? 모든 사람들 다 온 거지?</p> <p>A : Is everyone here yet? I want to open the presents now. B : Not yet, Billy. Have a little patience. A : When can I open the presents? B : Calm down, Billy. It'll be time soon enough.</p> <p>A : 모든 사람들 다 온 거지? 나 그 선물을 열어보고 싶어. B : 빌, 아직은 안돼. 좀 참아. A : 언제 그 선물을 열 수 있는 거지? B : 진정하라고, 빌. 곧 개봉할 수 있을 거야.</p> <p>* 언제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 When can we eat dinner? * have a patience : 참다 * calm down : 차분해지다 * be time : 때가 되다</p> <p><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p>	<p>오하오우 니혼고 <1216></p> <p>やっぱりビールがいいですね。 역시 맥주가 좋아요.</p> <p>A: 運動(うんどう)の後(あと)は冷(つめ)たいものがね。 B: やっぱりビールがいいですね。</p> <p>A: 운동 뒤에는 찬 것이 좋아요. B: 역시 맥주가 좋아요.</p> <p>* 일본어에서는 단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위의 문장은「冷(つめ)たいものがいいですね。」를 생략한 것이다.</p> <p><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p>	<p>니하오 쑹구위 <293></p> <p>我去奶奶家。 할머니 댁에 갑니다.</p> <p>A: 你去哪儿? Nǐ qù nǎr? 니 어디 가? B: 我去奶奶家。 Wǒ qù nǎinai jiā. 我去奶奶家. A: 奶奶在家吗? Nǎinai zài jiā ma? 奶奶在家吗? B: 奶奶在家。 Nǎinai zài jiā. 奶奶在家.</p> <p>A: 어디 가세요? B: 할머니 집에 갑니다. A: 할머니 집이 어디에요? B: 집 옆에요.</p> <p>去 [qù] 가다 奶奶 [nǎinai] 할머니 在 [zài] ~에 있다</p> <p><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p>	<p>한자 이야기 <933></p> <p>狐疑不决(호의불결) 여우 호, 의심할 의, 아닐 불, 결정할 결</p> <p>호의불결(狐疑不决)은 여우는 의심이 많아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의심하여 주저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비유한다.</p> <p>여우는 본래 귀가 밝고 의심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호청(狐聽)' '호의(狐疑)'라는 말이 생겼다. 여우는 본시 영리한 동물로 청각이 매우 뛰어나서 얼어붙은 강물을 건널 때도 후식부서질까봐 얼음 밑의 물소리를 확인하고, 무엇이든 물건을 땅에 파묻었다가 의심이 나서 다시 파내보고 또다시 묻는 습성이 있다고 한다.</p> <p>진(晉)나라 때 관연생(郭緣生)이 지은 '술정기(述征記)'에 다음 같은 여우이야기가 있다. 황하(黃河)의 나루터인 맹진(盟津)과 하진(河津)은 겨울에 강이 얼면 얼음의 두께가 몇 장(丈)이나 되어 거마(車馬)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얼음이 막 얼기 시작할 때에는, 사람들이 선불리 건너지 못하고 먼저 여우들을 건너가게 하였다. 여우는 얼음 위를 걸으면서도 이상한 소리가 나면 곧 얼음이 갈라지는 것을 예감하고 재빨리 강가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여우가 강을 다 건너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하고 수레를 출발시켰다고 한다. 의심 많은 여우의 성질을 이용한 사람들의 지혜인 것이다.</p> <p><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p>
--	---	---	---